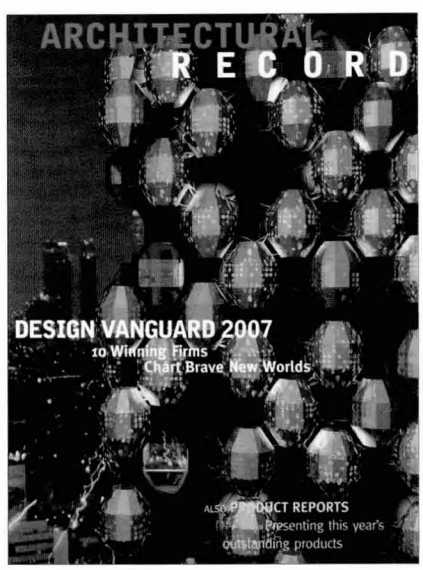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김훈 / 선문대학교 교원
부천대학 출강

약력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수료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12월호는 신예건축사 10팀을 다루는 디자인 뱅가드를 주력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는 이미지에 그쳤던 정서들을 실제로 공간에서 드러 내는데 상당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이 디자인이 그들의 관심사와 어울려 설득력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유형 연구에서는 연구시설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건축사들이 항상 마주하게 되는 제한된 대지와 예산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칠레 산호아킨 센트로 테크놀로지코, 필라델피아의 스키르카니히 홀, 샌디에고의 캘릿2와 같은 연구시설들을 고찰하고 있다.

■ Books

• David Adjaye Houses : Recycling, Reconfiguring, Rebuilding Edited by Peter Allison, NYC: Thames & Hudson, 2006

• David Adjaye Houses : Making Public Buildings Edited by Peter Allison, London: Thames & Hudson, 2006

: 피터 앨리슨이 데이빗 아드자에의 어제와 오늘을 다루는 두권의 책을 내놓았다. 아프리카와 중동, 일본의 전통건축의 영향을 받았던 그의 5개의 주거시설을 다룬 책과 공적 영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최근작들을 다루고 있다. 레코드 지는 저자의 야심에 미치지 못하는 도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저작임을 확인하고 있다.

• Lewis. Tsurumaki. Lewis: Opportunistic Architecture by Paul Lewis, Marc Tsurumaki, David J. Lewis. NYC: Priston Architectural Press, 2008

: 이 저작은 다름을 위한 다름에 천착하는 동시대의 건축사들과는 달리 절제된 표현으로 적확한 공간을 만들어 내려는 건축사 자신의 내밀한 독백에 다름 아니다. 그들의 조금 오래된 듯한 디자인 태도는 소위 '다른 건축' 들이 확언 속에 놓치고 있는 직관과 유연함에 대한 지향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 Design Vanguard 2007

올해의 디자인 뱅가드에 선정된 작가들은 일견 우아한 선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단지 호소력있는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건축이 놓인 이슈들을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건축사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들의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의 선정작가 중 예닐곱 회사는 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을 위한 전략과 디자인 개

발과 연관이 있다. 세바스티앙 마리스칼의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멕시코시티의 공공주택 건축사였던 그의 아버지를 도왔던 그의 초기 경력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타티아나 빌바오 또한 그녀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하기 전에 멕시코시티 도시 주택 개발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켐페 틸은 네덜란드에서 '명확한 불편부당성'을 수많은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적용해 왔다.

수오 후지모토에게 있어 사회적 참여란 정신적 감정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홋카이도에 있는 두 개의 요양 및 치료 시설에서 후지모토는 굳이 변덕스럽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평면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별난 공간에서 자신만의 용도를 개발하도록 이끌고 있다. 스페인의 에스투디오.엔트레시티오의 세 건축사는 일련의 주목할 만한 건강시설을 통해 건축적 시학과 적요함을 결합하고 있다.

페이 추의 베이징에서의 작업은 다른 방식으로 와 닿는다. 급속한 사회발전 속에 전통문화와 모더니즘 건축의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건물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결부시킨다는 데에서 올해의 디자인 뱅가드 선정 작가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이 부분이 바로 그들의 작품이 향후로 어떤 향기를 만들어 낼지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선정 작가(혹은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Studio Pei-Zhu/ Leven Betts Studio/ estudio.entresitio/ Höweller+Yoon Architecture/ Moongye Choi+GaA Architects/ Tatiana Bilbao(mx.a)/ Sebastian Mariscal Studio/ Sou Fujimoto Architects/ Broissin Architects/ Atelier Kempe Thill

Studio Pei-Z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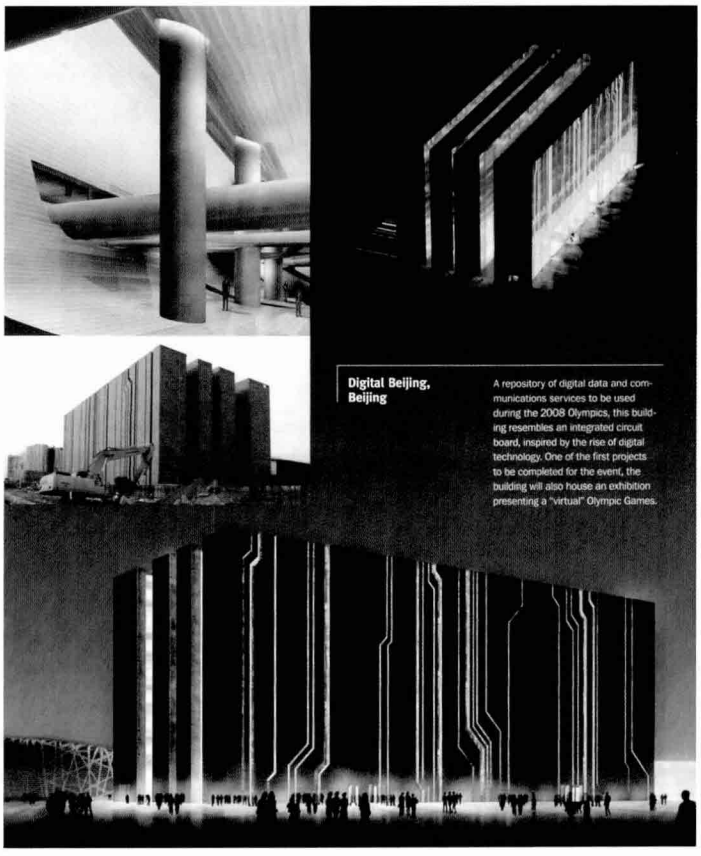
스튜디오 페이 추는 현대 중국의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현상의 뿌리와 충돌에 주목하여 이것이 반영된 건축을 추구한다. (그가 이전에 공동설립했던 사무소의 이름도 Urbanus 인 것을 보라) 초기의 블루빌딩에서 우르바누스에서의 디지털 베이징 빌딩에 이르기 까지 그의 관심사는 꾸준히 영역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태도는 자하와 게리, 장누벨과 함께 최종 로스터에 올랐던 아부다비의 파빌리온, 현재 진행중인 구겐하임 베이징 뮤지엄 아웃포스트와 같은 비교적 중국의 영향이 적어보이는 프로젝트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는 현대건축이 단지 도시경관에 작은 자국만을 남겨놓기를 원한다. 그는 건축이 도시개발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인민들이 즐길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함을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의 작품을 흥미롭고 잠재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estudio.entresi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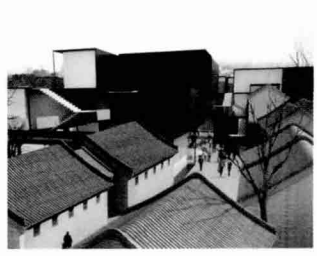
에스투디오.엔트레시티오는 모더니즘 안에 스페인건축의 전통을 섬세하게 직조한다. 그들의 작업은 솔직히 컨텍스트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경을 쓰지

• Studio Pei-Z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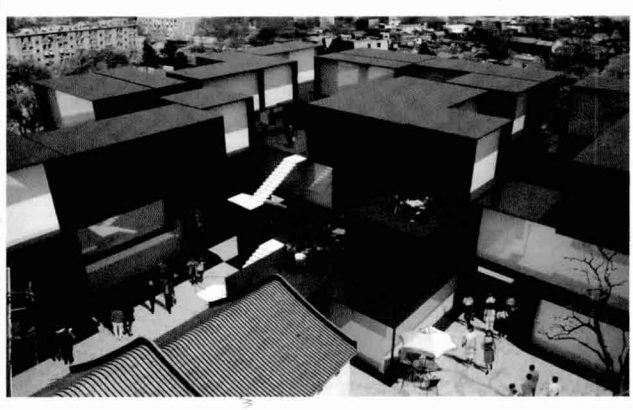
Digital Beijing, Bei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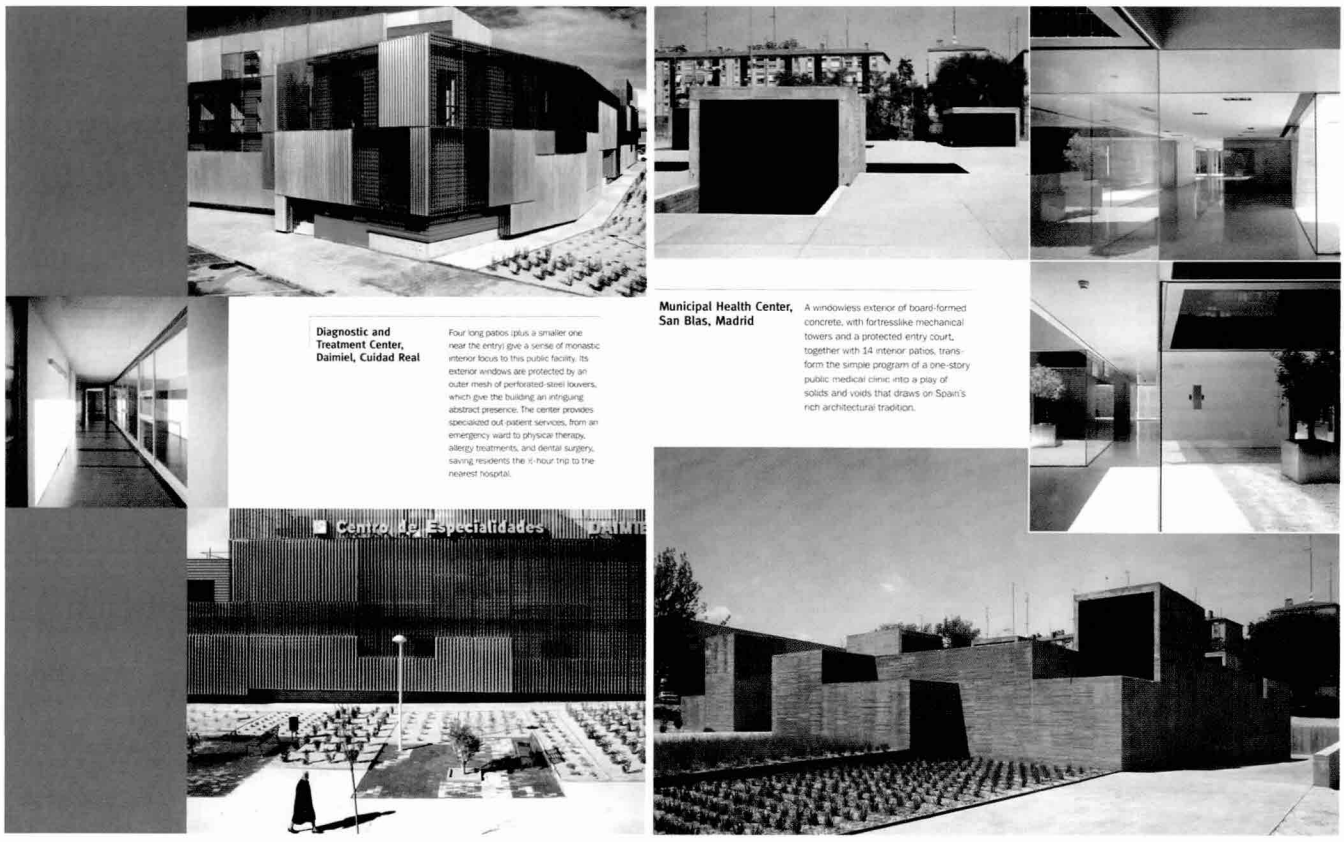
A repository of digital data and communications services to be used during the 2008 Olympics, this building resembles an integrated circuit board, inspired by the rise of digital technology. One of the first projects to be completed for the event, the building will also house an exhibition presenting a "virtual" Olympic Games.



Xisi Bei Historical Area, Urban Design Concept, Beijing

Studio Pei-Zhu studied the Xisi Bei area of Beijing and proposed a series of urban interventions aimed at reviving the old and often poorly maintained courtyard houses, or *hutongs*. By introducing a series of Modern mid-rise buildings in strategic locations in the neighborhood, the architects hope to create the kind of density and spaces for new functions needed to support a vibrant community, while allowing the *hutongs* to be rehabilit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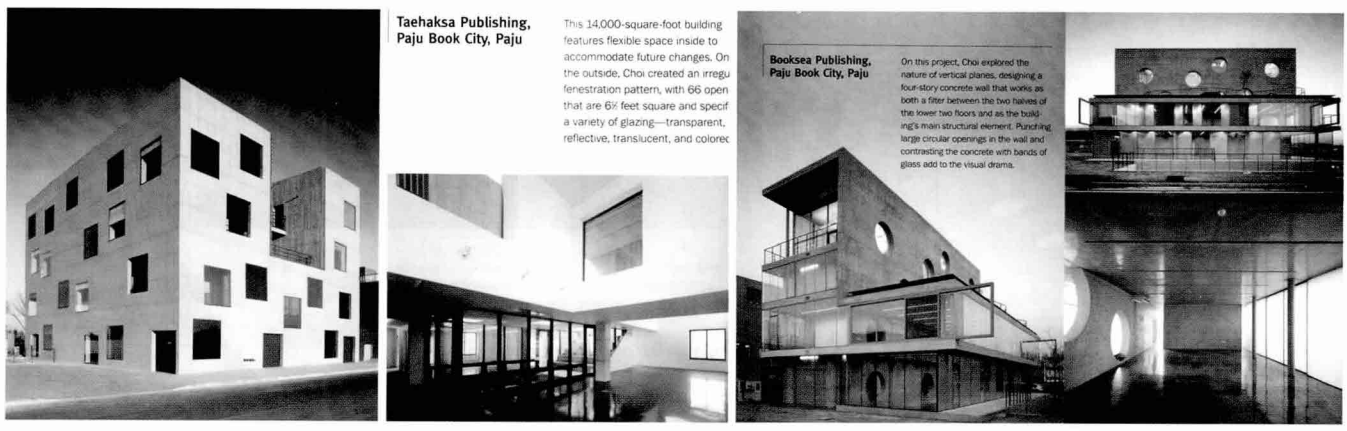
• estudio.entresi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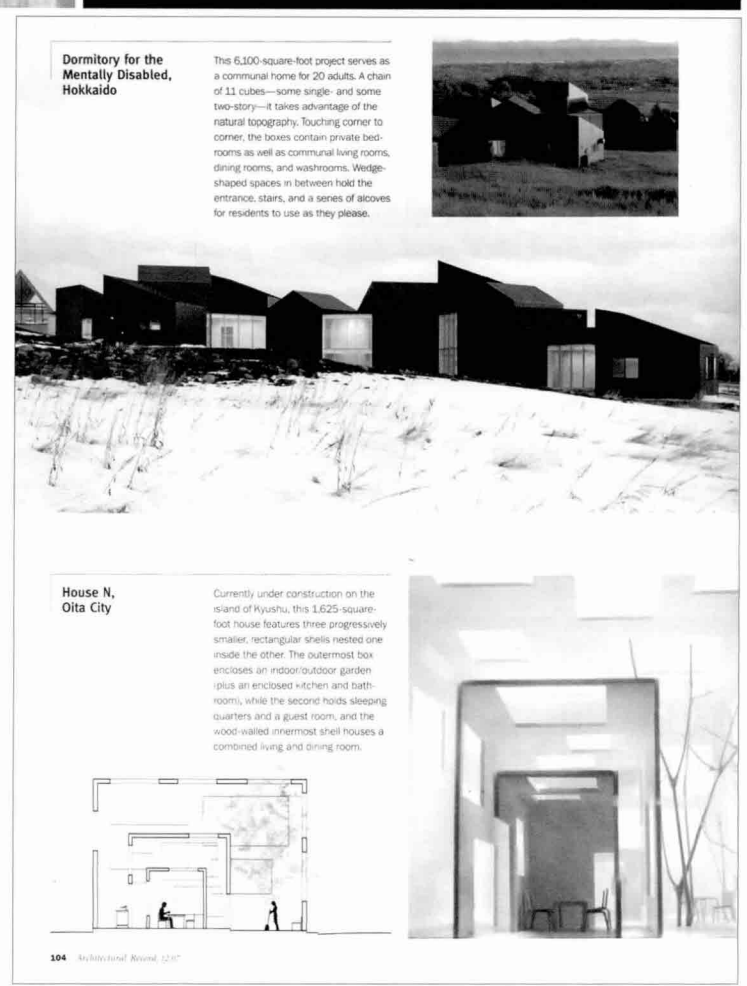
않는다. 이들은 스며드는 건물보다는 도드라지는 결과물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작업이 잠깐 멈춰서서 눈길을 끄는데 그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처해진 문제들을 순수하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며, 프로그램과 건축시공사이의 조율에 신경쓴다. 이런 꾸미지 않은 수련생 같은 태도는 50년대 마드리드 건축의 주요한 조류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기능적 효율성과 강력한 형태 사이에 충돌하는 요구를 조율하는 스페인의 엄한 공모전 지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최문규+GaA

2004년부터 레코드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건축사를 디자인 뱅가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2004-조병수, 2005-서혜림+김준성(힘마), 2006-장윤규+신창훈(운생동)] 올해에도 최문규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한국의 녹녹치 않은 자연조건 속에서 (이것을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섬세한 재료는 잘 안먹힌다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은 대담한 제스추어를 향하는 조각가의 감성과 장식이 없는 면에 대한 미니멀리스트의 태도를 결합하고 있다. 무거운 재료들을 투명한 것들과 대조시키고, 닫힘과 열림을 대비시킴으로써 그는 강력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박하거나 남루해지지 않는, 압도적이고 기억에 남는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 최문규+GaA





• Suo Fujimoto Architects

Suo Fujimoto Architects

그의 목표는 급진적이다. 그는 건축을 디자인 하는 '완전히 다른 방법' 을 찾고 있다. 일반적인 기둥과 슬래브, 계단 대신에 그는 그 모두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초기 미발표작인 Primitive Future House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구조, 계단, 개구부 심지어 가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슬래브의 적층으로 이루어진 건축을 시도했다. 그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들은 점차적으로 실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오이타 시의 주택에서는 단면상으로 세계의 다공성의 큐브를 겹친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택에서의 기능공간의 배열을 공간의 깊이감에 따라 재배열하고 있다. 기존 방식을 따르는 대신에 후지모토의 작업은 하나의 기능적인 구역과 그 주변사이의 지엽적 관계의 적층에 따라 구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형태나 전체적 평면에서의 차원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건축을 규정하는 주요한 부분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